

#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한 46년간의 동행

글 김혜진 작가/사진 민영주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의 한국본부인 경기도 수원 '평화의 모후원' 앞뜰에서 윤영정(왼쪽), 이경옥(오른쪽) 할머니와 산책 중인 이상옥 헬레나 원장수녀.

※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 1971년 작은 자매회의 수녀 3명 한국 입국, 양로원 개원 준비. 1973년 청주교구 파 야고보 주교, 성심양로원을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게 넘겨줌. 1990년 경기도 수원에 평화의 모후원 개원. 1997년 전북 전주와 서울에 성 요셉동산과 잔 주강의 집 신설, 성심양로원 폐원. 2001년 전남 담양에 예수 마음의 집 신설. 2005년 재 단법인 설립 인가(문화관광부).

1971년, 외국인 수녀 세 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폴린 마리, 베르나드, 로렌스 수녀는 각각 이탈리아, 영국,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 양로원을 세우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Little Sisters of the Poor, 이하 작은 자매회) 프랑스 본원에서 파견됐다. 작은 자매회는 1840년대에 프랑스에서 성녀(聖女) 잔 주강(St. Jeanne Jugan)이 설립한, 교황청 직속의 국제 사도직 수녀회다.

1839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랑스의 잔 주강 수녀는 거리에 서 반신불수인 시각장애 할머니를 만난다. 잔 주강은 그 할머니를 업어서 집에 모셔온 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침대를 내줬다. 돌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둘 갈 곳 없는 늙은 걸인들이 몰려들었다. 몇 년이 지나자 돌보는 노인이 40여 명으로 늘었다. 찾아오는 노인 모두를 수용하기 위해선 더 큰 공간이 필요했다.

잔 주강 수녀는 거리생활을 하던 노인들 대신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가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건물을 빌려 노인들을 돌보았다. 때로는 따귀를 맞기도, 밀쳐 넘어져 계단을 구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헌신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것이 가난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유일한 사명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는 ‘경로 수녀회’로 더 잘 알려진 작은 자매회의 시작이었다.

양로원 설립의 뜻을 품고 한국에 온 세 명의 수녀는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어학원인 명도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국에 온 사연을 가톨릭신문을 통해 소개했다. 얼마 뒤 미국 메리놀수도회 소속으로 청주교구 초대 주교이던 파야고보 신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 첫 번째 한국분원 운영

당시 야고보 신부는 청주의 성심고아원을 양로원으로 변경해 갈 곳 없는 나이든 걸인들을 거두어 돌봤다. 양로원은 수사와 직원 한 명에게 맡겨 운영했는데, 두 명이 운영하기엔 일이 벅차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세 명의 수녀를 만나 작은 자매회의 뜻에 공감한 야고보 신부는 성심양로원의 운영을 외국인 수녀들에게 넘겼다. 허름한 기와집이던, 작은 자매회의 첫 한국분원은 1973년 그렇게 마련됐다. 외국인 수녀들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비로소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됐다.

작은 자매회는 1973년 성심양로원(1997년 폐원)을 시작으로 1990년 경기도 수원에 ‘평화의 모후원’을, 1997년 전북 완주와 서울에 ‘성 요셉동산’과 ‘잔 주강의 집’을, 2001년 전남 담양에 ‘예수 마음의 집’을 차례로 개원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 수원 평화의



평화의 모후원 앞에 모인 이상옥 원장수녀(앞줄 왼쪽 세 번째)와 직원들. 유급 직원은 간호사와 영양사·조리원 등 20명이고, 9명의 수녀는 무급으로 봉사한다.

모후원은 작은 자매회의 한국분부다. 정원은 65명이고, 71세~102세인 노인 59명(남 11, 여 48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부부가 3쌍 있다. 서울 화곡동에 자리한 잔 주강의 집은 본관(지하 1층, 지상 3층)과 별관(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됐다. 정원은 25명으로, 24명(남 2, 여 22명)이 생활한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성 요셉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양로원을 운영 중이다. 정원은 70명인데 현재 65명(남 18, 여 47명)이 지낸다.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예수 마음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서 54명(남 6, 여 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성심양로원부터 모든 양로원을 두루 봐온 추미경 도미니카(70) 수녀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시설에도 변화가 있었다”며 그 변화는 초창기부터 필요했다고 말한다.

“성심양로원은 공동주거 형식으로 두서너 명이 한방에서 생활하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성격, 학력이 다르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니 불편함이 있었지요. 불을 꺼야 잠이 오는 분은 불을 켜야 잠이 오



평화의 모후원에서 설립자인 성녀 잔 주강 동상 앞에 모인 수녀들. 수녀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수녀들도 있다.

는 분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요. 방 한가운데 가림막을 세우고, 입구를 두 개로 만들어 방을 분리하기도 했어요. 임시방편이었죠.”

평화의 모후원 원장인 이상옥 헬레나(52) 수녀는 작은 자매회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상옥 원장수녀는 1989년부터 10여 년간 프랑스와 벨기에의 양로원에서 일했는데, 자신이 외국에서 목격한 바를 이야기하면서 노인들을 존중한다면 스스로 변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외국의 양로원에서는 노인들이 개인 방에서 생활했어요. 각자 본인 취향의 물건으로 방을 꾸몄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은 양로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의 자기 방에서 사시는구나, 말년의 평온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꼈지요.”

## 거리에서 탁발하는 수녀들

처음부터 원룸 형태로 지은 담양의 시설을 제외한 양로원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현재 작은 자매회의 한국분원 시설은 모두 침대,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독립적인 원룸 형태를 갖췄다. 노인들은 식사만 식당에서 함께할 뿐 그 외의 기상, 취침, 외출 등은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생활한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세심히 살핀 마음과 깊은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집에 들어오시는 누구나 이 집이 본인 집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난 세월은 힘들게 사셨지만 남은 생애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양로원의 입소 대상은 인종,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의지할 곳 없는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수녀들은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마지막 순간인 임종과 장례까지 책임진다.

“우리는 작은 자매회 설립자인 잔 주강 수녀가 실천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 없이 탁발(托鉢)로 생활합니다.”

이상옥 원장수녀에 따르면, 잔 주강 수녀는 ‘우리 수녀회는 고정 수입원을 두어선 안 되며, 모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탁발, 즉 모르는 이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기도하지 않으면 탁발하러 나갈 수 없을 정

도로 심적 부담이 큰 일이다. 때로는 가짜 수녀로 오해받거나, 냉대와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21년간 모금활동을 해온 추미경 수녀에겐 탁발과 관련한 여러 기억이 있다.

“예전에는 공장, 아파트, 빌딩, 가게에 들어가서 탁발하다가 쫓겨난 일이 부지기수였죠. 태연한 척 들어가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쳐요. 모금이 안 돼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안 좋은지 뒤에서 다시 불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세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 청과물 시장에서 먹을거리 등을 모금합니다. 또 여러 성당을 다니면서 우리 수녀회를 설명하고 모금하기도 합니다.”

양로원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엔 수급비의 일부를 양로원에서 지내는 생계비로 낸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탁발로만 운영하던 작은 자매회는 ‘생계비를 내는 것도 노인들의 권리’라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했다. 그리고 수급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받기로 결정했다. 원장수녀는 탁발한 돈이든 생활비로 받는 노인들의 수급비든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큰 은혜라고 말한다.

정부 지원은 받지 않지만 후원금은 받는다. 양로원 네 곳의 후원자는 2019년 7월 현재 1천4백여 명이다. 수녀들은 단순히 후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후원자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노인들을 모신다는 이유 하나로 종교를 초월해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개신교나 불교 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천 원, 이천 원씩 도움을 주시는데 이 얼마나 귀한 돈인가요. 그 분들이 수고해 번 돈을 기꺼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어요.”

### 최우선 가치는 ‘노인들의 행복’

“저는요, 스물아홉에 혼자가 됐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못 들어가고 한복 바느질을 배워 그 일을 하면서 아들 둘을 데리고 겨우 살았어요. 중학교 졸업밖에 못한 큰아들은 지금 가방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일이 꾸준하지 않아 사는 게 힘들고, 둘째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평화의 모후원에서 생활하는 이경옥 베네딕다(86) 노인의 고단한 지난 삶이다. 20년 전 평화의 모후원에 입소한 그녀는 이곳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배웠다. 그녀는 안내실에서 수녀들을 도와 16년간 전화안내를 보조하다가 지금은 귀가 안 들려서 쉬고 있다. 그녀는 “수녀님들은 천사들”이라면서 “이곳에 와서 내 삶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운영하는 양로원의 최우선 가치는 ‘노인들의 행복’입니다. 노인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상옥 원장수녀는 노인들의 행복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시킨 노인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노인을 집, 즉 양로원으로 모셔온다. 임종은 집에서 편안히 맞도록 해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녀들은 임종까지 3시간씩 교대로 그 곁을 지킨다. 노인이 삶을 마치면, 생전에 원하던 대로 사후처리를 해드린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행복한 말년에 이어 행복한 죽음까지가 작은 자매회가 추구하는 목표다.

이상옥 원장수녀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왔어요” 라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받음으로써 실행하게 된 하나의 계획을 들려줬다.

“우리 집에 102세 최고령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려고요. 할아버지의 소원이라는데 이뤄드려야지요.”



작은 자매회는 지난 46년간 경기도 수원과 서울, 전남 담양, 전북 완주의 4곳에서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소외된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위). 평화의 모후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방. 침대,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독립적인 원룸 형태를 갖췄다(아래).

46년 동안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작은 자매회의 수녀들.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많은 수도자들에게 자매회의 수녀들은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성가소비녀 수녀회의 담당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수녀회의 정식 명칭인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라고 하면 우리 사제들이나 수녀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별칭인 ‘경로수녀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양로원 운영에서 독보적이고 전통 있으며 아주 유명한 수녀회입니다.”

작은 자매회는 현재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32개국에서 3천여 명의 수녀들이 양로원 172곳을 운영하면서 1만1,528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한국 분원은 수원과 서울, 완주, 담양의 양로원에서 30명의 수녀들이 210여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작은 자매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을 거쳐 간 노인은 800여 명에 달한다. ☺